

나폴리탄에서는 케첩 맛이 나고

나는 손톱에 양말을 간신히 걸어 벗었다. 돌돌 말려 내려가는 양말. 씻기 직전 벗은 속옷도 양말처럼 말려 내려갔다. 화장실 거울 속 나는 비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 씻고 나와 냉장고에서 네 캔에 만 원이던 수입 맥주를 꺼냈다. 맥주는 그저 그런 시원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가 다 시리도록 차가운 맥주면 좋을 텐데. 손에서 물이 떨어져 내렸다. 산성비처럼. 발끝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느끼며 베란다로 넘어가는 턱에 걸터 앉았다.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다. 방석 없이 앉는 게 좋았다. 문턱에 맞춰 엉덩이가 구불거리며 맞춰지는 것 같았다. 서너 갈래로 쪼개진 엉덩이. 창문도 열었다. 밖에서는 아주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에어컨 바람보다는 뜨거웠지만 달궈져 있던 방보다는 시원한 정도였다. 며칠 내내 뜨거웠던 바깥이 비에 식어 있었다. 창밖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신음이, 분명 키우지 말라던 강아지의 신음이, 날카롭게 부서지는 맥주병의 소리가 났다.

시끄럽게 젖어대는 강아지 소리와 누군지 모를 남녀의 정사 소리를 들으며 맥주를 마셨다. 캔은 눅눅했다. 만져지는 캔의 느낌도, 입안에 남는 느낌도 눅눅했다. 나는 마시며 계속해서 습습 소리를 냈다. 습습. 혀를 구불거리며 안주를 찾았다. 술안주는 단아였다. 단아의 생각을 하며 맥주를 들이켰다. 십 분도 채 되지 않아 소리는 사그라들었다. 깨졌던 맥주병의 주인이 소리를 지른 탓이었다. 개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분명 그렇게 외쳤는데, 막상 조용해진 건 뜨거웠던 어느 남녀였다. 한순간에 세상이 조용해졌다. 잦아든 비가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열린 창문으로, 방충망에 잘게 쪼개진 빗방울이 발가락을 간지럽혔다. 나는 발가락을 꿈지락거렸다. 발가락 사이사이로 물기가 찼다.

언니, 다음에 또 이렇게 같이 자요. 단아의 말이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언니 또 보고 싶어요. 천장도 함께 돌았다. 언니, 언니. 단아의 얼굴이 빙빙 돌았다. 단아의 연한 갈색 머리카락이 함께 돌았다. 나는 꼭 먹구름 위에 올라탄 것 같았다. 온몸이 폭 젖은 채로.

나는 맥주를 좋아하지 않았다. 아직도 잘 모르겠는 보리 맛. 썩은 보리 맛.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는 탄산감이 배를 괴롭혔다. 마시고 나면 배에서 보록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럼에도 맥주를 마시는 건, 나름대로 맥주와 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삼 년 전에 호프집이 주로 모여 있는 거리에서 일했다. 평수가 좁은 건물 2층의 수제 맥주 가게였다. 생맥주 500cc를 한 손에 네 잔씩 끼운 채 서빙하는 가게와는 달랐다. 맥주의 종류마다 잔의 모양이 다르고, 일정한 거품 비율까지 만들어야

하는 맥주 전문 가게였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이십만 원 정도 팔리면 그날은 매출이 잘 나온 거로 쳤다. 사장은 9시까지 기다렸다가, 매출이 마음대로 나오지 않는 날에는 나와 Y에게 자주 이르게 마감을 시켰다.

단아를 처음 만난 것도 이르게 마감하고 그릇을 말려둘 즈음이었다. 식기세척기에서 꺼낸 수저는 일일이 건조대에 올려두어야 했다. 그때 문에 달린 종소리가 들렸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Y일 수도, 사장은 수제 피클을 담으러 밤늦게 가게에 오기도 하니 사장일 수도 있었다.

가게 마감하셨나 봐요.

생소한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나는 고무장갑을 벗고 홀로 나갔다. 고무장갑이 뽁뽁하게 잘 벗겨지지 않았다. 매장 입구에는 비가 오는 건지 머리가 젖은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의 옷에서는 물방울이 하나씩, 작게 떨어졌다. 여자의 발끝에는 작은 웅덩이가 생기고 있었다.

방금 막 마감했어요.

맵에서는 아직 마감 한 시간 남았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일찍 마감해서요.

여자는 아아, 하고 대답했다. 어물쩍거리며 나가지 않았다. 가게 벽에 붙어 있는 병맥주 뚜껑들을 보고 있었다. 다음에 오시면 서비스라도 드릴게요, 하고 말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아서 덧붙인 말이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병뚜껑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다가 나갔다. 여자가 나갈 때,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던 Y가 여자를 피해 들어왔다. Y의 어깨에도 비가 스며들어 있었다. 머리를 털어내며 Y는 누구냐고 물었고,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Y는 주방에서 손을 씻으며 내게 말을 걸어왔다. 엄청나게 자신의 취향이었다고. 그렇게까지 제 취향인 사람은 봤다고 했던가.

그 사람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을 것 같아요?

내가 물었다. Y는 바지에 손을 밀어담고 있었다. Y의 바지는 빗물에 질게 물들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오면 좋겠다.

잘 되면 축하해 줄게요.

결혼할 때 축의금 많이 해 줘요.

Y는 하하, 하고 웃었다. 먼저 퇴근한 Y를 뒤로하고 나는 가게에 딸린 흡연실로 가 재떨이를 치웠다. 집게로 쌓인 재를 쭉셔냈다. 습기를 먹었는지 물먹은 담배 냄새가 올라왔다. 결혼이 그렇게 하고 싶은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여자가 다시 오면, Y를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여자와 Y를 떼어놓을 방법을 고민하다 필터가 누

런 풍초를 봉투에 담았다. 비닐봉투의 절반이 채워졌을 무렵에야 모든 재를 치울 수 있었다. 나는 여자와, Y와 창문에 달린 환풍기가 덜그럭거리며 돌아가는 환풍기를 번갈아가며 생각했다. 냄새가 빠지는 것 같진 않았지만, 돌아가는 환풍기를 끄지 않은 채 퇴근했다.

여자는 그다음 날 바로 가게에 찾아왔다. 이번에는 꼭 마시고 말겠다는 집념인지, 오픈 시간인 5시 30분에 딱 맞춰 왔다. 이른 시간부터 올라가는 계단에 사람이 서 있어 귀신인 줄 알고 소리 없이 놀랐다. 나는 여자를 두고 일했다. 들어오라는 말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여자는 정말 내 뒤를 쫓았다. 스티로폼 박스를 끌어 안고 테이블에 옮기고, 매장에 불을 켜고, 간판 스위치를 눌렀다. 꺼져 있던 쇼케이스의 불을 켜고 주방으로 들어가니 여자가 더는 따라오지 못했다. 새로 들어온 식재료로 칸을 다 채우고 나왔을 때, 여자는 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마다 세워둔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어깨에 메고 온 까만 가방이 놓여 있었다. 나는 기본 안주를 냈다. 커켜이 쌓아둔 그릇 하나에 나쵸를 얹고, 구석에 치즈 소스를 동그랗게 짰다. 원래 나는 양보다 두 배 정도는 더 줬다.

맥주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바이젠 보크가 좋구요. 많이 나가는 건 필스너요.

여자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색연필로 칠해진 메뉴판 속 영성한 그림을 한참 들여다 보고 있었다.

그럼, 이거, 흑맥주는요. 맛있어요?

안 마셔봐서 모르겠어요.

내 대답에 여자가 웃었다. 여자는 필스너 한 잔을 주문했다. 나는 냉장고에서 적당한 차가워진 잔을 꺼냈다. 손을 바로 떼고 싶은 얼음장 같은 차가움 말고, 손가락이 닿는 그 부분만 투명하게 변하는 정도. 미지근한 잔에 담는 것보다 찬기가 오래 갔다. 필스너의 잔은 일자로 쪽, 직선인 매끈한 잔이었다. 나는 손에 안정감 있게 들어오는 필스너 잔이 제일 좋았다.

맥주는 뽑는 게 간단했다. 기울여서 천천히, 끝까지 잠긴 압력기를 풀고 레버를 올리면 맥주가 잔의 벽을 타고 흘렀다. 반쯤 차면 슬슬 잔을 세웠다. 높이서 떨어진 맥주에서 탁탁, 터지는 소리가 나며 거품이 생겨났다. 탁탁, 나는 스푼으로 거품을 조금 덜어냈다. 다시 레버를 당겨 맥주로 잔을 가득히 채웠다. 그 장면을 보고 싶었는지 여자의 의자가 끌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다 뽑은 잔을 들고 뒤를 돌았을 때 입을 벌린 채 지켜보고 있는 여자가 보였다. 조금만 있으면 침 흐르겠다. 그렇게 생각했다. 여자는 다시 의자를 끌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맥주가 마시고 싶다. 여자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켰다. 가득 채웠던 잔의 반이 사라지고 없었다. 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손을 더듬거렸다. 샘플러로 나가는 작은 잔이 바에 있었다. 두세 모금이면 사라질 작은 잔. 그 잔에 흑맥주를 마셔야겠다. 매장에서 파는 흑맥주는 나름대로 특색이 있었다. 질소 맥주. 유일한 흑맥주 메뉴인 스타우트는 따르는 방식이 달랐다. 나는 잔의 벽을 기울여 계속 따랐다. 벽을 따라 고동색 거품이 흘러나왔다. 거품만 가득 찬 잔을 테이블에 올렸다. 얌전히 기다렸다. 여자도 함께 기다렸다.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아주 잘게 생겼던 거품이 맥주로 변했다. 마법같이. 나는 인중에 거품이 닿는 걸 느끼며 한 모금 마셨다.

일하면서 마셔도 돼요?

무슨 맛인지는 알고 팔아야 하니까요.

맛이 어때요.

여자가 물었다. 사실 마셔도 되는지 몰랐다. Y가 작은 잔에 종종 뿔아서 마시길래 대답한 척했다. 물론 Y도 씨씨티비가 보이지 않는 바 아래에서 흘쩍거렸다. 처음 마셔보는 흑맥주는 쓰고, 깊었고, 눅눅했다. 여자에게는 맛있다고 했다. 나는 샘플러 잔에 스타우트를 한 잔 더 뿔아 여자에게 건넸다. 약속한 서비스. 그렇게 말하며 웃음을 보여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여자는 다 마시고 더 주문해야겠다며 좋아했다. 안주는 따로 주문하지 않았다. 가게의 안주는 비쌌고,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았다. 그리고 시제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갔다. 여자는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지 나쵸를 느긋하게 먹었다. 나쵸에서는 파삭거리는 소리가 났다.

여자는 자신의 이름이 단아라고 소개했고,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이는 나보다 세 살 어렸다. 직업을 구해야 한다면 꼭 커피와 관련된 것과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아침마다 마시던 아메리카노가 맛이 다른 걸 알고 모든 원두를 갈아 마셔보고 싶었다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매니저로 얼마 전에 승진했다고. 단아는 승진했다는 표현을 썼다. 나름대로 직장이지않아요. 돈도 벌고, 매일 출근하고, 앉아서 하는 사무직만 취직한 게 아닌데. 단아는 그렇게 말하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단아가 매니저로 일하며 생긴 일들에 대해 푸념을 놓다가, 맥주를 마셨다가, 그렇게 한 잔을 비울 때까지도 다른 손님은 오지 않았다. 나는 단아가 하는 얘기를 들으며 같이 작은 잔을 비웠다.

언니는 왜 여기에서 일해요?

나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사장은 가게를 운영하며 빚이 쌓이고 있었고, 조만간 가게를 정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흘린 적이 있었다. 자식 둘을 데리고 바닷가에 집을 얻어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도. 나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

냐고 묻고 싶었다. 나와 Y를 우리라고 묶어도 되는 건 모르겠지만. 나는 마땅히 대답할 만한 걸 제시간 안에 찾지 못했다. 단아는 이제 질문의 대답이 딱히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하품을 한 번 한 단아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급하게 대답했다.

맥주를, 맥주를 좋아해서요.

단아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았다.

단아는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천천히 한 잔씩 주문했다. cctv로 지켜보았는지 사장은 내게 따로 퇴근하라는 연락을 주지 않았다. 단아는 천천히 맥주를 들이키며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모를 이야기들을. 사귀지 않고 자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술을 마신 단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다. 단아가 스물이 되자마자 갔던 홍대와 합정 사이의 클럽, 외국인이 더 많던 이태원의 길거리, 사람이 우글대며 손목을 낚아채던 뼈끼들의 이야기. 생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몸을 부대끼며 울렁거리는 속을 붙잡고 술을 위장에 부어대는 이야기. 그러다가 눈이 맞고, 손이 닿으면 아침까지 함께 있는 그런 이야기. 내가 잘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던 이야기.

아침에 홀로 일어나는 기분이 얼마나 거지같은지 모르죠. 단아는 침대에 자신의 온도만 남아 있는 게 제일 싫다고 말했다. 어젯밤에도 잘 모르는 사람과 섹스하고 일어나서 홀로 있었다고.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로 달려갔다가, 변기에 앉아 멍하니 타일 곰팡이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그날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했다.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듣는 내내 말이 쓰리게 귀를 스쳐서, 어찌면 맥주 때문에, 귀가 뜨겁게만 느껴졌다. 단아는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마음에 들었겠다. 줄눈 지우개를 살까 인터넷을 보여주던 단아는 갑자기 또 사랑 이야기를 시작했다. 진짜, 정말, 처음,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사랑을 해서 그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짜, 정말, 처음, 그런 사랑이 나에게는 어려운 말이었다.

단아가 이야기하는 도중 핸드폰이 울렸다. 잠시만요, 하는 말에 단아가 괜찮다며 끄덕였다. Y에게서 연락이 왔다.

- 저 오늘 병원 때문에 오픈 못 가요.

- 이따가 갈게요. 아니면 사장님께 여쭙볼까요?

Y가 두 개의 문자를 연달아 보내왔다. 울고 있는 고양이가 이모티콘이 함께 왔다. 이 문자를 왜 오픈하고도 두어 시간이 지난 즈음에야 보내오는 건지. 사장은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올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 많이 없으니까 미래 씨가 조금 힘내줘요. Y가 빠질 때마다 귀에 딱지 얹게 들었던 말이었다. 어제 왔던 사람, 지금 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타자를 쳤다가, 지움 버튼을 아주 오래 눌러 전부 지웠다. 단아가 왔다는 사실을 Y에게 딱히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보내려다가 타자쳤다.

됐어요. 몸 조심하고 이따가 봐요.

보내기가 무섭게 내 답장에 하트가 찍혔다. 대답은 올 줄 알았는데. 단아는 이만 가 봐야겠다며 내게 카드를 건넸다. 나는 포스기에 단아가 주문한 맥주를 찍었다. 펄스너, 스타우트, 세션 아이피에이. 단아는 다음에 꼭 와서 병 맥주도 마셔보고 가겠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다.

담배 안 피우고 가요?

내가 물었다. 가방 사이로 나온 담배를 봤다. 아아, 제 거 아니에요. 단아는 그렇게 말했다. 내 말을 들은 단아는 담뱃갑을 눌러 넣었다. 가방이 작아서 끝이 계속해서 뽐족하게 나왔다. 단아가 담뱃갑을 눌러 넣기를 반복했다. 그런데도 모퉁이는 튀어나왔다. 영원히. 단아는 취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취하지 않고서야 되지도 않는 일에 저렇게 신경쓰지 않겠지. 몇 분 안 되어 단아는 더 밀어 넣기를 포기했다. 나는 영수증을 뽑아 내 전화번호를 적었다. 단아는 카드와 함께 영수증을 받았다. 영수증 하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봤고, 단아는 별다른 말 없이 가게를 나갔다. 그날은 손님이 더 오지 않았다. Y도 오지 않았다. 지켜보고 있었는지 사장은 이제 마감하라는 연락을 보내왔다. 나는 그날도 환풍기를 끄지 않았다.

*

지금 생각해 본 것이지만, 단아는 내가 자신과 자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것도. 번호를 주었을 때도 그게 무언의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단아와 잘 생각이 없었다. 단아는 나와 친구가 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오기로 연락을 이어간 걸까. 단아는 바로 연락해 왔다. 언니 뭐 해요. 그럼 내일은 뭐 해요. 오늘 가게에 가면 있나요. 카페에 완전 진상 왔어요. 나는 오전 중에 온 연락들을 오후에 전부 답장했다. 출근해요, 내일도요. 가게에 있죠. 그러면 단아는 또 다음 날 오전에 연락했다. 단아는 달이 바뀔 때까지 가게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달이 바뀌고, 중순이 되어 월급을 받았다. 사장은 늘 같은 금액을 주었다. 승진이나 추가 수당 이런 것들은 없었다. 하지만 금액과 날짜만큼은 정확했다. 그런 점이 좋았다. 해가 바뀌면 최저시급이 올라서 더 늘어날 숫자들. 나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올린 은행 알림을 보고, 집에 둘 방석을 알아보고 있었다. 때마침 한동안 격주로 한 번씩 빠지고 있는 Y가 연락을 보내왔다. 일찍 출근할 예정요. 오늘 돈 들어왔잖아요. 나는 Y가 일찍 올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러게요, 하고 대꾸했다.

나는 누워서 방석을 계속 알아봤다. 출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Y는 정말로, 예상했던 것처럼 일찍 오지 않았다. 나는 매장 불을 다 켜고, 주방에 환풍기를 켜다. 바닥을 쓸어내고 있을 때 Y가 멍쩍은 얼굴로 들어왔다. 버스가 늦어서요. 변명은 짧았다. Y는 재빠르게 내게서 빗자루를 뺏어 들고 나를 들여보냈다. Y는 한두 번 단아의 이야기를 하다가 더는 꺼내지 않았다. 지인에게 소개받아 새로 연락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했다. 너무나도 잘 맞는 사람이라고, 결혼까지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는 축하한다고 했다. 사귀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 얘기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축하한다고. 그때 Y가 말했다.

여기 없어지기 전에 미리 일자리 구해야죠.

그런 얘기는 딱히 못 들었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마음 먹은지 꽤 됐는데. 천천히 접으시려고 하긴 하더라. 저 그래서 다음주에 최종 면접 보러 가잖아요.

Y가 말했다. 뭔가 배신당한 느낌이었다. Y를 나와 함께 우리라고 묶으면 안 됐다. 사실 사장이 Y와 건너 건너 아는 사이여서 Y의 근무 태만을 늘 알고도 몰라주었던 것보다도 더 충격이었다. 사람들은 왜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먼저 앞서나가나. 나는 Y에게 붙으면 한 톱 쏘라는 말이나, 나중에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되면 챙겨달라는 녀석 좋은 말은 하지 못했다. 세척된 수저를 마른 수건으로 직접 닦으면서 고개만 끄덕였다. 홀에서 걸레질하는 건지 멈칫거리는 Y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래 씨는, 남자 친구 없어요?

네.

연애할 생각도, 없어요?

네.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말만이라도 고마워요.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았다. 대걸레를 벽에 세워두고 서 있는 Y에게 나는 말을 걸었다. 흡연실 냄새가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Y가 흡연실을 대걸레로 가리키며 말했다. 흡연실 환풍기 제대로 작동 안 한 지 꽤 됐어요. 냄새가 잘 안 빠지는지도 모르죠. 대수롭지 않다는 듯 Y가 담배를 피우러 들어갔다. 잠시 후 내가 재떨이를 정리하러 흡연실에 들어갔지만, Y에게 따로 말을 걸지 않았다. Y는 담배 한 대를 다 피우고, 전자 담배까지 피운 다음에서야 흡연실에서 나갔다.

그날은 손님이 많았다. 단아의 연락은 신경도 쓰지 못할 정도로 바빴다. 근처 대학교에서 단체로 손님을 받았고, 최근에 칼에 베여서 무섭다는 Y를 대신해 주방으로 들어갔다. 계속 핸드폰이 울렸다. 사람들이 안주를 가지각색으로 시켜대 바쁜 참이었다. 나는 음식을 만들어 내보냈다. 종지에는 사람이 더 들어와 Y까지 음식을 만들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카프레제를 만들어 발사믹을 뿌렸을 때, 나는 Y에게 피우지도 않는 담배를 타령하며 흡연실로 도망갔다. 흡연실에선 환풍기가 탈탈거리며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시간을 확인하려 핸드폰을 열었고, 그 위 알림으로 부재중 전화가 열 번은 더 와 있었다. 단아였다. 나는 다시 단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단아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왜 이제 연락해요.

손님이 많아서. 왜요?

스파게티가 먹고 싶어서.

웬 스파게티.

내려와요.

그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다. 왜 왔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단아가 내어준 대답은 단절음이었다. 다시 전화를 걸어도 단아는 받지 않았다. 아직 마감까지 두 시간이나 남았었고, 손님이 많으니 사장이 마감하라는 연락을 보낼 리 없었다. 나는 포스기 앞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Y의 옆에 가서 섰다. Y는 바람난 남자친구 잡기 따위의 제목을 가진 영상을 보고 있었다. 나는 Y의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다.

저 가도 돼요?

미래 씨 연애하죠.

왜 질문으로 대답해요.

연애한다고 하면 제가 할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Y는 대답하지 않고 짐을 챙기는 나를 막지 않았다. 그저 내가 나갈 때, 연애하는 거면 알려줘요, 하고 뒤에다 외치는 게 전부였다. 한걸음에 달아내려간 좁은 계단에는 단아가 앉아 있었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단아는 녹눅했다. 나는 단아의 어깨를 툭툭 쳐서 깨웠다. 단아의 어깨도, 입고 있는 옷도 모두 녹눅했다. 단아 씨, 단아야. 습기를 가득 머금은 단아는 말을 걸어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계단을 완전히 내려가 단아 앞에 섰다. 단아는 웃고 있었다. 동그랗던 입술이 양 옆으로 찌져 있었다. 어깨가 웃음을 참느라 아주 작게 흔들렸다. 단아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온다고 진짜 나오면 어떡해요.

그 시간에 여는 스파게티집은 거리가 좀 있었다. 골목길로만 가야 해서 타고 갈 버스도 없었고, 택시는 할증이 붙기 시작할 시간이었다. 단아는 자꾸만 내게 붙어왔다. 걸어가요. 걷고 싶어요. 단아는 스파게티집까지 내 손을 잡고 걸었다. 손이 단아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렸다. 흔들릴 때마다 더운 바람을 가르는 게 느껴졌다. 열대야였다. 새벽이 다 되어가는데도 열이 식지 않고 있었다. 나와 단아는 전철이 다니는 바로 옆길을 걸었다. 높은 철제 벽이 세워져 있었다. 누가 그린 건지 모를 벽화는 페인트 조금 벗겨져 있었다. 손톱만 하게. 녹은 걸지도 몰랐다. 7월의 밤은 너무나도 더웠다. 며칠간 비가 내리더니 간만에 내리지 않은 날이었다.

더위를 먹은 것 같았다. 한 번 먹은 더위가 쉽사리 가시질 않았다. 팔다리 모두 화끈 거렸지만, 유독 단아와 잡고 있는 손이 뜨거웠다. 자꾸만 손에서는 땀이 났다. 금방 땀이 나는 체질도 아니었는데도 그랬다. 걷는 내내 손이 미끄러졌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열이 모조리 손으로 가는 것만 같았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걸었다.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었다. 습습. 바람 가르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단아가 그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내가 쳐다보는 걸 알았는지 단아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입에 쓴맛이 남았어요. 습습. 단아는 문 닫기 직전인 식당에 들어가 빠르게 먹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원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았다. 매장 마감 30분 남으셨어요. 투명한 물통과 잔을 가져다주며 직원이 말했다.

단아는 시원한 테이블에 얼굴을 붙이고 있었다. 취기 때문인지, 열기 때문인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단아의 동그란 볼이 테이블에 눌러 납작해져 있었다. 바닥에 쏟은 나쵸 치즈 소스처럼. 나는 그동안 메뉴판을 들여다 봤다. 메뉴판에는 종류가 몇 없었다. 그마저도 전부 품질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양식집보다는 일본 퓨전 요리집에 가까웠다. 스파게티는 나폴리탄이 전부였다.

근데 왜 스파게티였어요?

모르는 남자가 먹자고 하더라구요.

누가요. 헌팅하다가 갑자기 파스타, 이런 거를. 말도 안 돼.

파스타 말고. 스파게티.

그게 뭐가 달라.

다르죠.

수달이랑 해달만큼 달라요.

단아는 파스타를 빠하스타, 라고 말했고, 스파게티를 말할 땐 스파게티하고 차갑게 말했다. 미묘하게 다른 그 발음이 웃겼다. 그러다가 갑자기 파스타와 스파게티의 차이점에 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의미한 것도, 정말 개념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 스파게티는 집에서 금방 해 먹는 음식 같은 거. 파스타는 접시에 이만 원은 주고 먹어야 할

것 같은 거. 스파게티는 은박지 호일 접시에 담겨 있을 것 같고, 파스타는 외국 도예가가 만든 접시에 돌돌 말려 나온 것 같은 차이. 나는 그 말에 은근히 동의했다.

근데 뭔가 스파게티라고 하면 케첩에 버무린 것만 생각나는 것 같아.

단아가 말했다. 스파게티에서는 명확한 맛이 난다고. 케첩. 그제 케첩. 토마토로 만들었지만 토마토 맛이 나지 않는 맛. 단아와 나는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먹었다. 케첩에 버무린 스파게티를 먹었다. 단아는 피망을 모조리 골라냈다. 골라낸 피망을 가지고 접시 위예다가 하트 모양을 만들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웃었고, 단아는 핸드폰을 가지고 찍어댔다. 영업 시간을 3분 남기고 우리는 주문한 음식을 다 해치웠다. 밖으로 나온 단아는 취기가 다 했는지 내 손을 잡고 걸지도 않았고 떼쓰지도 않았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레 단아를 따라나섰다. 다시 불어오는 덥고 습한 바람. 얼굴이 자꾸만 뜨거워졌다.

나는 단아의 집에 갔다. 모텔이 아니라, 단아가 정말 사는 흔적이 남은 집에 갔다. 단아는 들어가자마자 건조대에 올려둔 옷들을 옷장에 쑤셔넣고는 웃었다. 단아의 집은 단아의 집 같았다. 넓게 깔려 있는 흰 러그, 혼자 쓰기엔 조금 넓은 침대, 주방에 놓여 있는 커피 그라인더. 몇 번이고 커피를 내려 마셨는지 하나 있는 테이블에는 커피 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바닥에는 단아가 자주 입던 옷이 널려 있었고, 정리되지 않은 화장품이 엮어져 있었다. 깔끔하지 않은 단아의 집에서는 가볍고 부드러운 구름 냄새가 났다. 구름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는 몰랐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나는 얄전히 의자에 앉아 단아가 씻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밖에서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지 떨어지는 물 소리가 단아의 샤워 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단아의 집이다.

나는 단아에게서 빌린 것들로 씻고, 말리고, 말랐다. 씻으면서 아마 단아가 지웠을 곰팡이를 찾으려 집중해서 봤다. 나는 구석에서 덜 지워진 곰팡이 자국을 찾았다. 덜 씻겼네. 나는 씻다가 말고 샤워실 서랍을 열어 락스를 찾았다. 곰팡이 제거제를 흔들어 남은 양을 가늠해 보았다. 샤워실이 얼마나 자주 습했고, 얼마나 자주 곰팡이를 없앴는지. 결국 뚜껑을 열어 남은 양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단아는 옷을 앞에 가져다 두었다고 말했다. 나는 락스를 서랍에 도로 넣어두었다.

단아에게서 빌린 잠옷은 단아에게서 나는 냄새가 났다. 단아가 내 손을 잡고 걸을 때 났던 냄새와 똑같았다. 나보다 조금 큰, 기다란 프릴 소매가 내 손바닥 절반까지 오는 잠옷. 우리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꺼진 불에 시야가 아득했다. 아무것도 없는 듯이. 나와 단아 사이에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누웠다. 단아의 새끼손가락과 나의 새끼손가락은 닿지 않았다. 단아의 숨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하지 않았던 사람인 듯 숨소리가 일정했다.

언니. 저 사람이랑 자지 않고 누운 거 처음이에요.

곧 잘 거잖아요.

그거 말고요. 이 시간에 자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럼 보통 언제 자는데요?

늦어도 한 시쯤에.

단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보니 벌써 한 시가 넘어 있었다. 원래 그 시간대의 나는 버스에 실려 집으로 향할 시간이었다. 어느새 어둠에 눈이 익숙해져가고 있었다. 눈을 깜빡이고 기다릴수록 조금 더 많은 게 보이기 시작했다. 가령 단아가 배 위에 두 손을 겹쳐 올리고 있다는 거라던가. 단아는 손가락을 꿈지락거렸다. 나는 눈이 아직 감기지 않았고, 단아는 침대에 누워 눈이 깜빡이고 있었다.

있잖아요. 진짜, 정말, 처음, 아주, 많이, 사랑하는 거 알려줘요.

내가 물었다.

진짜 사랑이라는 건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나 말하는 거예요?

단아가 내 말에 크게 웃었다. 맞다. 언니 이름이 미래였죠. 잊고 있었네. 단아가 웃을 때마다 몸이 흔들렸다. 침대가 함께 흔들렸다. 일어서 앉은 단아의 몸이 오뎅이처럼 앞으로, 뒤로 움직였다. 단아는 침대 옆에 있던 테이블의 조명을 켰다. 눈이 부셨다. 갑자기 열고 노란 빛이 한번에 들어왔다. 단아의 밝은 갈색 머리가 더 밝게 빛났다. 단아는 엎드려 누웠다. 나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단아가 움직이는 걸 바라봤다. 단아는 말하는 게 설레기라도 하는지 다리를 접었다가 폈다가, 뒷꿈치를 엉덩이에 닿게 세게 움직이기도 했다.

아뇨. 다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이 사람이랑 섹스하지 않아도 다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시간에 다른 걸 알아보는 거요. 예를 들어서 아, 이 사람한테서는 빗물 냄새가 아니라 인센스스틱 냄새가 나는구나. 그런 거.

그 다음에는?

커피를 좋아하느냐고 묻고, 산미가 있는 걸 좋아하는지, 과일향이 섞인 걸 좋아하는지 같은 거를 물어본 다음에. 직접 갈아서 내려주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부끄러워졌어요. 단아가 같이 덮던 이불을 끌어당겨 머리까지 덮었다. 이불로 동그랗게 말린 단아가 숨을 습습하고 쉬었다. 습습. 나는 이불을 당겨 덮었다. 머리가 이불 밖으로 나온 단아가 자자며 불을 켰다. 또다시 앞이 보이지 않았다. 단아가 엎드려 있던 몸을 도로 돌리는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단아의 새끼손가락이 내 새끼손가락 위에 닿았다. 짧았던 거리가 줄었는지, 단아의 숨소리가 가깝게 느껴졌다. 단아가 내 배 위에 손을 올렸다. 나는 손을 치우지 않았다. 숨을 고르게 쉬었다. 잠에 들 수 있도록. 단아의 손

이 배보다 따뜻했다. 핫팩을 올려둔 것 같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땐 단아가 없었다. 침대의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대신 포스트잇 하나만이 자리잡고 있었다. 단아의 손글씨로 쓰인 작은 편지.

언니, 출근 때문에 먼저 가요. 커피 내려줬으니까 마셔요.

나는 단아가 내려둔 커피를 마셨다. 커피는 썼다. 산미고, 과일향이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려둔 지 얼마나 지났는지 이미 식어 있었다. 머그컵 아래에도 커피가 고였다. 동그랗게, 컵을 들어올릴 때마다 물방울이 터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테이블에 남은 커피 자국을 올려져 있던 물티슈로 닦았다. 지워졌으면 좋겠어서 계속 물티슈를 문대고, 접어서 다시 문땀지만 말끔히 지워지지 않았다. 끈적하게 붙은 자국 위에 새벽에 보았던 서랍 속 락스를 꺼냈다. 나는 단아의 집에 있던 모든 커피 자국과, 화장실 속 아주 작게 나 있는 곰팡이를 지운 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단아에게 연락을 남겼다. 커피를 내려주어서 고맙다고. 그런데 커피를 잘 모르겠어서 쓰게만 느껴진다고.

*

나는 단아와 뜬문뜬문, 아주 가끔씩 연락했다. 처음에는 분명히 연락이 잘 되었다.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낮과 밤을 구분해서 연락을 서로 주고받았다. 단아에게서는 늘 오는 진상 이야기를 들었고, 나는 단아에게 Y가 그만 두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 Y는 일을 관두었다. 딱히 다른 곳에 취직을 한 것도 아니었다. Y가 사랑한다던 여자와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다. 얼마 못 가서 결별했다.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 계속해서, 달마다 여자친구가 바뀌었고, 매번 Y는 결혼을 결심했다. 풋내기처럼. 꼭 모든 결말이 결혼인 것처럼. 재작년에 한 번 Y의 성화에 못 이겨 남자를 소개 받은 적도 있었다. 나는 소개로 나온 남자에게 커피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그와 파스타집을 갔다가, 개인 카페를 간 참이었다. 결제를 눈앞에 두고 히비스커스차를 주문하는 남자를 보고 그대로 나왔다. Y에게서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냐는 연락이 왔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한동안 나는 혼자서 일했다. 가게는 여전히 손님이 없었고, 문을 닫을 채비를 했다.

단아는 내게 집착하지 않았다. 나도 단아에게 집착하지 않았다. 나는 어쩌면 내가 단아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단아보다 아주 늦게 일어나서, 단아가 자는 나를 보고 화장실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곰팡이를 제거하려고 락스를 사지 않아도 되는 집을 만들고, 늘어붙은 커피 자국을 제때 닦아내줄 수 있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않았다. 무작정 단아의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다. 단아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다가, 계속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작년 겨울쯤 나는 단아와 연락을 완전히 그만두었다. 이제 연락하지 말자, 같은 말들로 정리한 건 아니었다. 차츰차츰 연락이 오는 주기가 늦어지고, 나도 그 무렵 가게가 정리되었기에 바빴다. 매일, 이틀에 한 번, 주에 한 번, 달에 한 번, 그리고 단아는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겨울에 예전에 갔던 스파게티집에 또다시 갔다. 가게를 정리한 날이었다. 마지막까지 환풍기는 제대로 고치지 않았다. 나는 철물점에서 부품을 사다가 고칠까 했지만, 어차피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 부품을 사지 않았다. 사장은 내게 가게를 넘겨 받을지도 물어봤지만, 거절했다. 함께 청소를 마친 사장은 커다란 흰 차에 모든 짐을 싣고 떠났다. 그동안 수고했어, 미래 씨. 사장이 예약이라도 걸어두었는지 마지막 급여가 들어와 있었다. 더 주는 것 없이 그대로. 나는 기찻길을 따라 걸었다. 벽화는 새로 덧칠해져 있었다. 끝이 녹았던 건 전부 꿈이었다는 듯이.

파스타 집에는 사람이 많았다. 이른 시간에 와서 그런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다. 줄이 길었던 가게에 1인석이 먼저 나왔다. 손을 마주 잡고 기다리던 커플들이 나를 쏘아보는 듯했다. 나는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주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김이 피어오르는 나폴리탄 스파게티 한 접시를, 그리고 아메리카노 한 잔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떠났다. 나는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사진 찍은 다음, 단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밖이에요?

언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알아요. 그냥 뭐하는지 궁금해서.

그냥 누워 있어요. 예전에 예약한 호텔에.

그렇구나. 저번에 먹은 스파게티 먹으러 와서.

제가 지금 잘 거라서요.

응.

다음에 전화해요.

나는 단아가 직접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 아아, 하고 어물쩍거렸다. 단아가 그랬던 것처럼. 단아의 이어지는 말을 기다렸다. 아니면 단아의 옆에 있을 사람의 목소리라도 들리길 기다렸다. 나는 음량을 가장 크게 키우고 스피커에 귀를 바짝 댔다. 단아가 다른 사람이라 또다시 자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단아라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단아는 내게 전화를 끊겠다고 말했다. 잘 지내요, 언니. 전화가 끊겼다. 단절음이 세 번 났다. 뜨거웠던 스파게티에서는 더 이상 김이 피어오르지 않았다. 나는 포크로 스파게티를 뒤적거렸다. 숨겨진 피망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다. 나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나폴리탄 스파게티를 먹었다. 얼음이 녹고 있는

아메리카노를 두고 맥주를 한 잔 주문했다. 맥주를 크게 한 모금 마시고, 입에 쑤셔넣
듯 먹은 불어터진 스파게티에선 새콤하고 달짝지근한 케첩 맛이 났다.